

19세기 한국 南西海 島嶼地域 民家の 유형적 체계

金知民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I. 연구의 視覺과 對象

Fosberg는 島嶼性(Insularity)을 地理的으로 바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격리되어 있으며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토와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특징지우고 있다. 이 점들은 섬의 生態學的 특징과 社會文化的 특징들을 형성하는 데 작용한다.

한편 도서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할때 주목할 것이 주민이동과 관련된 문화소재의 발견인데 특히 한국 남서해 도서지역은 17세기 경에 새로운 入島祖¹⁾들에 의해 문화가 再構成 되기 시작한 독특한 지역이므로 이 사실 또한 본 민가연구의 중요한 歷史·文化的 환경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의 視覺과 觀點을 ① 島嶼性, ② 주민 移動과 “入島祖”文化, ③ 島嶼=總體的 生態系文化 등에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에 건립된 남서해 도서지역 가옥의 특징을 類型化시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한국 住居史 定立에 있어 실증적인 자료가 될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① 島嶼 민가의 歷史·文化的 특성, ② 가옥의 配置 및 平面類型 體系, ③ 건축의

構造 및 意匠특성 등이 추가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미흡한 분야는 후속 연구과제로 두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결론부분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시기적으로 19세기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可視的으로 거의 原形을 갖추고 있는 일반 서민의 주거²⁾이며 지역적으로는 한국 남서해 지역이다. 행정상으로는 전남 新安郡, 珍島郡, 그

1) “入島祖”란 현재 島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의 섬에 처음 들어온 直系血祖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 入島祖의 生存年代는 17세기로서 현 주민으로부터 10代~15代祖가 일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마치 그들이 섬의 개척자, 발견자, 최초 移住民인 것으로 믿고 있으나 사실은 先史時代부터 사람이 살았음이 이미 밝혀졌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다루었다.

2) 住居의 생활주체는 비록 島嶼지만은 주로 土地에 경제적 기초를 두었던 일반농민이다. 그의 身分的 階層은 거의 비슷하며 다만 土地所有의 정도에 따라 小·中農家 정도로 분류된다. 그리고 현지 조사과정에서 특별히 大地主의 가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經濟的 階層에 대한 住居類型의 體系는 다루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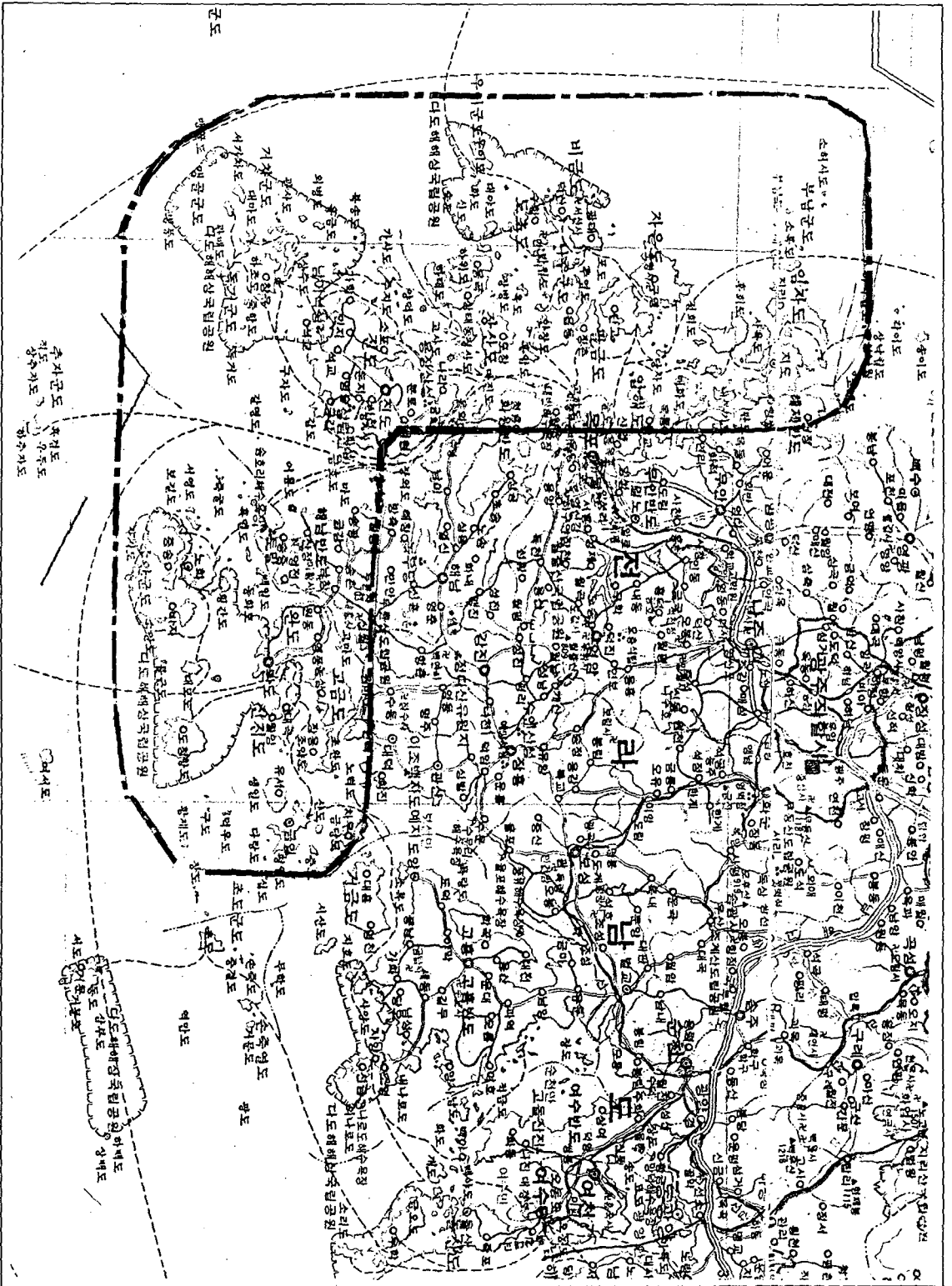


그림 1 調査 研究 地域

리고 莞島郡까지 포함된다. 이 지역은 도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내륙보다는 文化的 교대가 용이하지 않았고 따라서 民俗, 住居分野 등에서 비교적 전통적인 모습이 溫存되어온 지역이다. 본 연구에 자료가 된 가옥 수는 약 450여호이며 이들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된 가옥들이다.

II. 南西海 島嶼地域의 歷史·文化的 특성과 “入島祖”

1. 도서지역의 歷史와 “入島祖”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남서해 도서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던 것은 新石器時代로 나타난다. 1990년 현재 新安郡 지역에서만 확인된 先史遺蹟³⁾은 ① 貝塚 12개소, ② 支石墓 35개군 142기, ③ 遺物 散布地 14개소 등이다. 이 당시의 거주형태는 내륙지방에서와 같이 원시적인 竪穴住居였을 것으로 추정하나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住居址는 아직 발굴 보고된 바 없다.

고려말기부터 남서해 도서지역은 큰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즉 이 지역이 갖는 歷史地理的 위치와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왜구의 침탈지로 변하면서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내륙으로 피난, 정착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東國輿地乘覽”

의 全羅道 羅州牧條에 의하면 왜구의 침입에 따라 고려말기에 黑山島 사람들이 현재의 榮山浦지역으로 집단 移住하여 그들의 集居地를 榮山縣으로 하였다가 1363년(공민왕 12)에는 郡으로 승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黑山島 이외에 長山島民의 羅州移住, 珍島民의 靈岩移住 등 남서해 도서전체가 空島상태로 까지 가게 되었다. 이러한 空島의 시기가 4~5세대, 150여년에 걸친 오랜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도서지역 전래문화 요소들은 많은 단절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조선초기 沿岸지역이 왜구의 침탈에서 벗어나 행정력이 안정권에 들어간 15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도서지역의 주민이주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시의 도서이주는 정부로부터 강한 제약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수는 결코 많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珍島와 같이 큰 섬의 경우도 불과 113호(500~600인) 미만이었으며(세종 15년 황희의 上奏), 다른 작은 섬의 경우는 더 적었으리라 여겨진다. “어쨌든 이러한 도서로의 계속된 주민 이주와 정부의 금제조치들이 竝存하는 상태에서 도서지방은 15~16세기를 보낸 것이며, 이러한 시기의 주민구성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섬지역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불우했던 조선초기의 도서주민들은 入島後 1~2세기도 못되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커다란 외환을 만나게 된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유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⁵⁾ 대체로 당시의

行政 區域	島 嶼 名	조사 가옥수	조사 기간
전남 新安郡	智島, 荏子島, 沙玉島, 曾島, 慈恩島, 岩泰島, 八禽島, 箕佐島, 飛禽島, 都草島, 荷衣島, 長山島, 上台島, 下台島, 大黑山島, 押海島	약 300호	1986~1990
전남 珍島郡	珍島, 上島島, 下島島	약 45호	1986
전남 莞島郡	莞島, 甫吉島, 青山島, 平日島	약 105호	1990~1991

표1 조사대상 주요 島嶼와 조사가옥 수

3) 崔盛洛, 西南海 島嶼地方의 先史文化, 목포대 『島嶼文化』 第7輯, 1990, p168~175

4) 李海濂, 新安島嶼地方文化的 歷史的 背景, 목포대 博物館 『學術叢書』 第9冊, 1987,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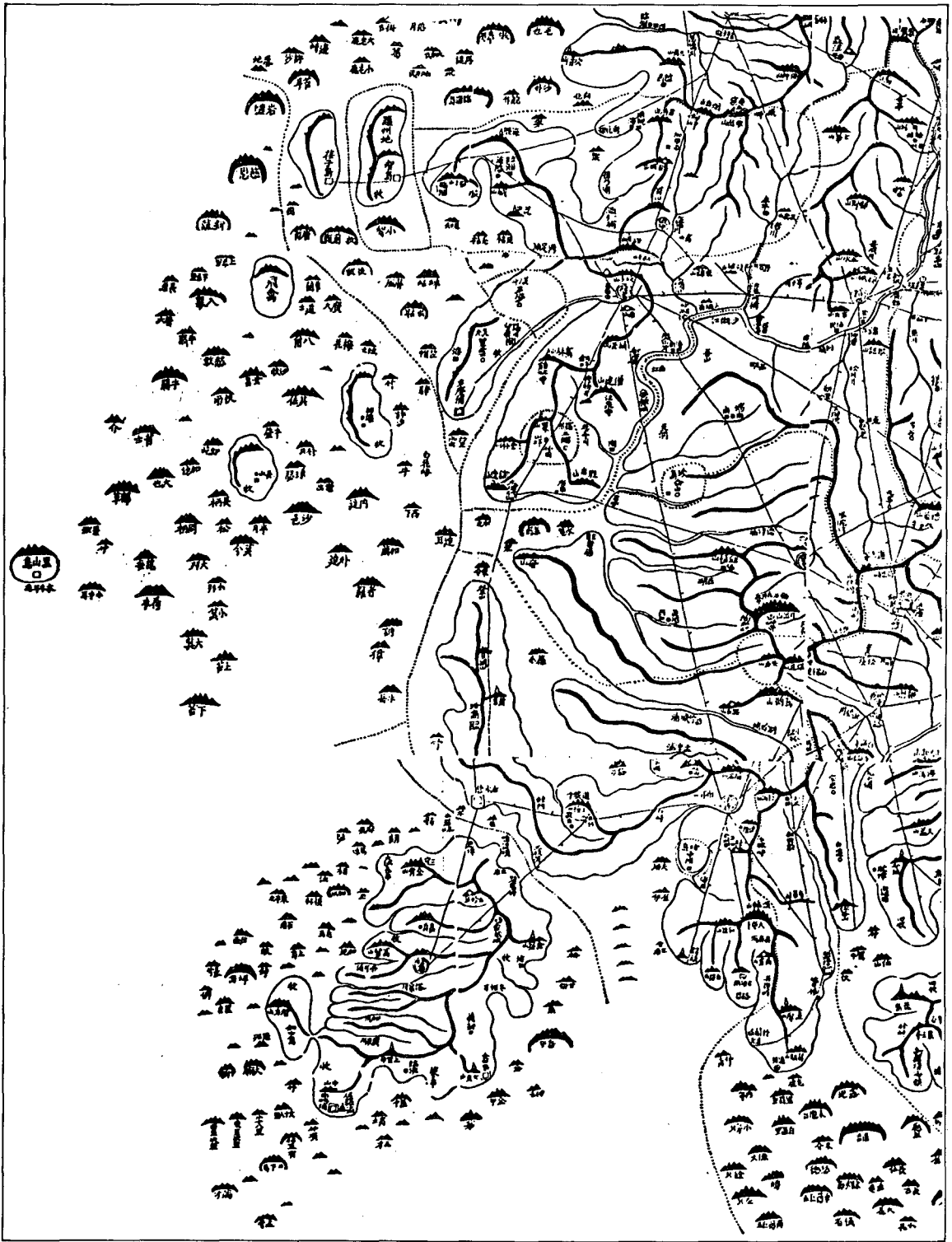


그림2 朝鮮後期 南西海 島嶼地域(大同輿地圖, 1861年)

도서민들은 왜적의 침탈을 피해 내륙이나 더욱 깊은 도서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왜란이 거의 종식될 무렵에는 전보다 더욱 많은 수의 內陸人들이 島嶼로 유입되어 실로 대대적인 주민교대가 이루어진다. 17세기 전후한 시기의 새로운 도서 移住民들은 현재 도서주민의 “直系血祖”로서 크게 주목하기 않을 수 없다. 이들 “入島祖”라 불리는 조선후기 도서지역 移住民들은 현재의 島嶼文化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온 실질적인 주역들이며, 현재 섬지역에 남아있는 문화요소들은 바로 이들 이주민들이 그들의 前 住居地에서 이식시켜왔던 것을 섬의 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島嶼文化는 이들 文化主體들의 이주경로나 이주 배경을 떠나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런 까닭으로 섬지역 문화가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내륙, 혹은 남

서해안의 문화상과 비교·조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이들 조선 후기의 이주민들은 왜란기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리된 집단들로서 주로 17~18세기에 집중적으로 도서지역에 정착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주경로는 내륙의 남서단 해안지역을 경유하여 남서해 섬으로 계속 이동하는 형태였다. 이들의 이주 경로는 당시의 바닷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대체로 海南·靈岩·康津을 경유하여 珍島·莞島 등으로, 혹은 남서단의 長山·荷衣島 등에서 북서쪽으로 역류하는 현상도 볼 수 있다. 같은 섬에서 섬으로의 이주도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인접한 섬으로의 분산이나 더 깊은 지역으로의 이주가 돋보였다.⁶⁾ 표2는 그러한 사실을 檢證하기 위해 荷衣島와 靑山島를 사례로 入島由來를 현지조사한 것이다.

島嶼	姓氏	入島祖	入島時期(추정)	入島前 居住地	入島後 分散地	
荷	金海金氏 (三賢派)	守文	1600~1645	강진칠량	장흥, 해남	
	晋州姜氏	之謹	1643~1691	강진성전 → 해남화원 ↗ 해남우수영 → 암태 ↘ 안좌	해남, 안좌	
衣	完山李氏	世綱	1650이후	長柄島	해남, 흑산도, 안좌	
	金海金氏 (四君派)	信轍	1652~1717	양주	해남, 진도, 조도	
	漆原諸葛氏	萬益	1668~1715	해남송지	장산	
	郎州崔氏	仲漢(重漢)	1675~1737	영암	장산, 제주, 해남, 자은	
	坡平尹氏	行遠	1677이후	화산		
	慶州金氏	道順	1682이후	古縣·해남우수영	장산, 영암	
	丹陽馮氏	明泰	1702~1737	영암서호·자은 → 소호(안좌)	정착	
島	密陽朴氏	宗秀	1703~1749	해남송지	大也島	
	濟州梁氏	濟老	1722~1737	해남옥천 → 해남송지 → 장산	상태 서리	
	靑	咸陽朴氏 (而弘公派)	麟壽 (?~1592)	1592년경	강진	권덕리, 완도
		金海金氏 (三賢派)	顯三 (1532~?)	1600년경	강진(백도리)	강진
羅州丁氏 (都憲公派)		時錫 (1602~1677) 道興	1640년경	장흥(대덕)	고금도 장흥 나주	

山 島		(1626~1688)			영광
	草溪崔氏	字 松 (1624~1708)	1650년경	해남	고금도, 강진 해남, 완도
	彦陽金氏 (秋齋公派)	奎 壽 (1627~1725)	1650년경	해남(고현)	담양 영암
	慶州鄭氏 (文獻公派)	康 (1628~1651)	1670년경	남원	
	延安車氏	珊 立 (1634~?)	1680년경	강진	신지도
	江陵劉氏	利 聖 (1637~1713)	1680년경	강진	장흥, 강진, 영암
	氏 金海金 (四君派)	顯 龍 (1647~1660) 世 龍 (1650년대)	1650~1659년	영암(서호)	장흥, 고금도
	濟州梁氏	之 瀾 (1648~?) 舜 喆 (1670~1705)	1670년경	해남(어란) 영암	하의도 영암
	安東權氏 (樞密公派)	震 (1656~1724)	1680년경	강진(도암)	완도 강진
	晉州姜氏	世 老 (1661~1698)	1680년경	영광	고금도, 영광 강진
	全州李氏 (德泉君派)	泰 伯 (1680~1756)	18C초엽	해남, 강진, 완도	양지 상서리
	星山裴氏 (貞節公派)	日 東 (1716~1757)	18C초엽	古潮(?)	
	慶州李氏 (梧村公派)	錫 稷 (1719~1798) 錫 同 (1720~1798) 錫 命 (1721~1803)	1750년경	충청도 진천	
	羅州林氏 (長水公派)	昌 鎭 (1724~1770)	1751년 이후	나주(회진)	강진(도암) 나주
	密陽朴氏 (料正公派)	萬 立 (?~1797) 萬 源 (?~1801)	1750년경	해남(송지)	
長興魏氏	命 萬 (1750년대)	1750년경	진도		
忠州池氏 (忠城公派)	厚 泰 (생몰년미상) 俊 伯 (생몰년미상)	1750년경	해남(송지)		
淸州韓氏	奎 旭 (생몰년미상)	1780년경	강진(월남)		

표2 入島祖의 入島時期 및 前住居地(荷衣·靑山島)

區分 島嶼名	輿地圖書 (1759년)				戶口總數 (1789년)			
	戶	口	男	女	戶	口	男	女
八禽島	205	443	174	269	225	638	355	283
安昌島	189	454	162	292	207	612	361	251
荷衣島	60	158	77	81	143	540	277	263
都草島	281	714	378	336	347	989	582	407
者羅島	47	137	67	70	53	135	76	59
愁致島	16	31	14	17	18	64	34	30
沙致島	7	13	3	10	7	16	8	8
大也島	13	35	17	18	12	28	17	11
半月島	27	86	37	49	31	77	46	31
朴只島	25	58	25	33	24	71	51	20
高下島	55	159	78	81	33	90	47	43
押海島	378	1341	680	661	459	1276	785	491
飛禽島	369	798	374	424	406	1512	847	665
智島	824	2146	1141	1005	891	1734	957	777
長山島	224	620	295	325	223	577	312	265
慈恩島	420	812	493	319	426	1335	720	615
黑山島	283	705	361	344	350	920	530	390
紅衣島	18	56	27	29	28	59	36	23
可佳島	33	68	35	33	39	81	43	38
青山島	428	1352	591	761	490	1576	749	827

표3 조선후기 南西海 주요 島嶼의 戶口數

이상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왜구와 왜란으로 인한 도서지역의 불안한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전수되어오고 가꾸어 왔던 섬지방 문화의 기지를 단절시킨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섬에 새롭게 정착한 移住民(=入島祖) 문화가 오늘날의 섬지역 문화로 固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조사한 민가 역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직·간접적으로 안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2. 島嶼文化 環境의 특성

1) 人文·社會 環境

Vayda와 Rapaport는 入島祖(Founders)들의 문화가 도서에 정착하면서 적응적 변용을 하는 사례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고향에서는 特定階級, 地域, 家內集團 등에 국한된 部分文化였던 것이 도서에 정착하면서 全體文化로 변용된다는 것이

다. 즉 환경에 맞게 문화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남서해 도서지역 문화도 17세기 전후의 入島祖들이 전래한 문화를 전적으로 재생산할 수는 없었고 한정된 資源, 제한된 領域, 지리적 隔離性, 海洋生態系 등의 자연조건들에 적응하는 양식으로 변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住居文化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19세기 가옥에 내제된 건축적 普遍性도 그러한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떠한 형태로 系統이 이어지고 또 새롭게 재생되었을까? 또 <표2>에서 보듯이 좀 늦게 도착한 18세기의 移住民 문화와는 어떻게 융화, 결합되었을까? 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다. 물론 그러한 답을 쉽게 얻어질 성질이 아니다. 좀 더 심도 있고 體系的인 島嶼文化의 성격이 규명되어 질때 가능해질 것이다. <그림3>은 그러한 의미에서 현존하는 19세기 민가의 系統을 3가지 類型으로 추정, 도표로 나타내본 것이다.

도서의 자연환경적 특성상 海路는 先史, 古代에서 부터 문화의 중요한 전과경로가 되었다. 이

5.6) 李海濤, 「前掲書」, p44

남서해의 도서와 연안지역 사이를 지나는 海路는 古代文化의 이동로였으며 이곳을 통해 동양 3국의 문화가 교류되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통일 신라말 장보고의 해상활동이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보면 대부분의 통일신라시대 渡唐留學生들이 왕래한 海路도 바로 이곳이었고, 禪宗寺刹이나 靑瓷文化가 발흥하는 것도 이 해로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1976년 新安 海底遺物船의 발굴(荏子島 앞 바다)도 역시 이러한 해상로로서의 성격을 잘 반증하는 것이다.⁷⁾ 마치 오늘날의 고속도로처럼 이 지역을 통과하는 海路는 그 시대의 문화·경제적인 보급로였고 결국 그에 인접한 도서지역들은 이러한 문화 이동로에 매우 가까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시기의 도서는 현재보다 그 歷史的 의미가 충분히 격상, 이해될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정책은 초기의 단순한 영토적 관심에서 점차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 인구 및 경제의 통제강화로 전환되어 갔다.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 특권 세력에 도서가 先占되고 토지가 宮家의 折收地로 되거나 군사목적의 官屯田으로 전락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당시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후기 長興출신의 魏伯珪(1727~1798)도 海島는 ① 중앙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있어서 부득이 제2, 제3의 대리인에 의한 통제가 관행 될수밖에 없고, ② 특히 宮家에 折收·占奪된 경우는 더욱 가혹한 法外收奪을⁸⁾ 당했다고 그 폐단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토지문제는 비록 시대가 바뀌었지만 1920년대에 발생했던 岩泰島의 소작쟁이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강한 경향을 보이게 될 지도 모른다. 즉 당시 도서는 官災, 바람, 피난 등의 외적요소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한 예로 내륙지방에서 보이지 않는 “우실”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마을 어귀에 담장처럼 쌓는 石築을 말한다. 이는 작

게 축소해 보면 민가의 경계(담장), 집락형태 등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住居文化와 직접 관련된 것중 특히 눈에 띄는 사항은 육지에서 보기 드문 上樑文의 기록이다. 필자가 조사한 19세기 가옥중 상당수가 “道光”, “咸豐”, “同治” 등의 中國 年號를 사용하여 上樑文을 기입하였고 이보다 연대가 빠른 “嘉慶”(1796~1820)이란 年號를 사용한 가옥도 있다. 비록 열악한 도서환경속에서도 그들은 높은 住文化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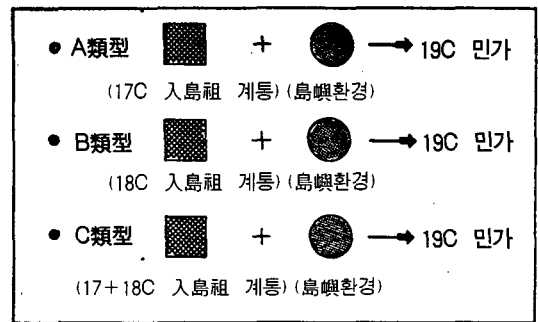


그림3 19세기 民家의 文化系統 推定圖

2) 自然 環境

한반도의 남서부 해역에 위치한 연구지역(新安·珍島·莞島郡)은 1,296개(有人島 198개, 無人島 1,07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多島海지역이다. 이 수치는 전국 島嶼의 약 40%에 해당된다. 이들 도서는 전부 육지의 침강결과로 생긴 도서로서 지형은 대부분이 100m 이하의 丘陵性 산지를 이루고 있어 평지는 극히 적은 편이다.

9) 우실의 성격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우실은 어떤 경우이든 부락의 신성 지역 또는 공동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 구축 목적은 대개 다음 세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즉 ① 防砂·防風의 目的, ② 隱蔽(경계)의 目的, ③ 風水地理의인 이유 등이 그것이다. 현재 岩泰島의 松谷·益金里 우실, 都草島의 발매리 마을에 그 형태가 잘 남아 있다. 익금리 우실은 총 길이가 70~100m이고, 높이는 4~5m, 그리고 폭은 하단이 3~4m, 상단이 1~1.5m 정도가 된다.

7) 李海濂, 「前揭書」, p15
 8) 李海濂, 岩泰島의 文化遺蹟과 遺物, 목포대 「島嶼文化」, 第一輯, 1983, p48

하천 또한 소규모이다. 이 지역의 비교적 높은 산으로는 신안군의 두봉산(363, 8m) · 단봉산(355, 5m) · 문암산(378m), 완도군의 적자봉(430, 3m) · 망월봉(364m) · 매봉산(384, 5m) · 상황봉(644m), 진도군의 침찰산(485m) · 여귀산(452m) · 수리봉(450m) · 덕신산(401m) 등이 있다.

각 도서 주위는 리아시식 해안을 형성하며 갯벌이 넓게 펼쳐져서 경지, 염전, 양식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곳에 따라(특히 黑山島 등) 해수의 강한 침식으로 암벽이 해안선을 따라 나타나는 곳도 있다.

기후는 한반도의 대부분이 냉대기후지역에 속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양성 온대기후권에 속하고 있다. 氣象(1983~1988년의 6년간 평균치)은 맑은 날이 73일이며 흐린 날은 121일, 강수일(0.1mm 이상)은 127일, 강설일은 33일, 폭풍일수(日≥13.9m/s)는 22.5일이다. 위 기간의 년 평균기온은 13.5°C, 平均最高極값은 31.1°C, 平均最低極값은 -8.38°C이며, 기간동안의 년평균 강수량은 1,175mm이다. 일조시간은 평균 2,101시간이며 평균 풍속은 4.1m/s이다. 이중 평균 풍속 4.1m/s는 전남 내륙지역(求禮郡)의 2.0m/s보다 2배이상 큰 것으로 결국 바람은 이 지역 민가구조의 큰 환경원인이 된다. 개괄적으로 보아 降雨期는 6, 7, 8, 9월에 집중되고 初霜은 11월 중순, 終霜은 4월 초순이며 폭풍이 심한 편이다. 最低氣溫은 1월, 最高氣溫은 8월에 나타나며, 北西風이 우세하고 最大風速 19.7m/s 정도이고 夏季에는 南西風이 우세하며 最大風速은 22.7m/s 정도이다.¹⁰⁾

Ⅲ. 民家の 基本構成

본 장을 포함하여 제 4·5장은 19세기에 건립된 남서해 도서지역의 전통민가에 대하여 主題別로 建築性格을 類型化시켜 그 특성을 살펴본 것

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현존하는 19세기의 가옥들은 17세기를 전후한 移住民의 住文化가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새롭게 再構成되면서 발전, 固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入島(17세기) 당시의 주거형태에 대하여는 사실을 밝힐만한 현장은 물론 기록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前住居地의 주거환경과 비교하여 크게 열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가옥구조 역시 상당수 현존하는 19세기 건축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 마을 立地와 민가

마을의 형성과 構造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성격과 地形的인 요소, 그리고 生産方式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의 村落은 古代로 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 고유의 氏族制度, 政治組織, 階級制度, 儒敎文化, 經濟組織, 産業狀態, 地勢, 氣候 등의 광범위한 환경아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風水地理的 要素와 土俗的인 信仰 등은 마을의 구조와 領域을 짓는데 크게 좌우하여 왔다. 그러나 이 지역 마을의 형성과 발전은 이러한 여러 환경의 영향보다는 우선 島嶼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自然地理的 環境이 마을구조와 民家の 발전에 크게 관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 지역의 각 섬은 丘陵性 山地가 많고 평지의 발달은 미약한 관계로 대부분의 마을은 丘陵性 산지의 하단부에 조성되고 가옥구조는 20여호부터 많게는 100여호가 集落의 형태를 이루고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히 250여호나 되는 예외 마을도 있다(荷衣島 대리마을). 몇몇 호가 단독으로 구성된 곳은 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도서지마는 主 産業이 거의 土地生態系에 의존한 관계로 近距離에 農地가 있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을 택해 마을이 조성되고 건물이 지어졌다. 또한 마을과 마을은 서로 산이나 언덕으로 격리되어 있다. 한편 遠海에 위치한 嶺南도지역과 몇몇 도서의 각 마을은 대부분이 해안을 낀 경사지형에 背山臨海의 마을구조를 이루고도 있다. 이는 섬의 중앙부는 거의 해

10) 新安郡, 新安郡「統計年報」, 1984~1989년. 수치는 木浦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莞島와 珍島지역도 같다.

밭 200~300m의 비교적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심한 海蝕으로 인해 평지가 거의 없어 오직 마을이 형성될만한 곳은 부분적으로 나타나 는 彎曲된 경사지형으로 한정되어지기 때문이다.

2. 建物構成과 性格

남서해 도서지역에서 나타나는 민가의 外的 構成要素는 크게 ① 거주용 및 기타 부속 건물, ② 외부와의 境域을 이루는 육중한 돌담장, ③ 마당과 텃밭, 장독대, 우물 등이 들어서는 외부공간 등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이 세가지 요소중 건물구성을 살펴보면,

가옥의 기본이 되고 있는 안채가 꼭 있고 그 외에 부속채로 사랑채와 측간채, 헛간채가 있다. 안채는 본채라고도 하나 안채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다. 보통 거주용 방 한개를 중심으로 외양간 내지 헛간이 추가되어지는 사랑채는 모든 가옥에서 건립된 것은 아니고 가족구성과 경제능력에 따라 건립되어 졌는데 조사가옥의 약 40% 정도가 사랑채를 갖고 있다. 호칭은 도서에 따라 간혹 행랑채라고도 하나 사랑채라는 명칭이 압도적이다. 사랑채의 건립시기는 안채와 동시에 건립된 가옥도 있으나 대부분이 안채보다 늦다. 도서지역에서 크게 중요시 되고있는 것이 측간채인데 이는 측간(변소), 두엄간, 잣간 등이 복합용도로 쓰

여지고 있다. 내부에는 특별히 공간 구획을 위한 간막이 시설 등은 없다. 측간채는 죽담구조(돌과 흙을 번갈아 쌓아 만든 벽체를 이 지역에서는 “죽담”이라고 부른다)의 草家로서 면적은 보통 4~6평 정도이다. 그러나 흑산도지역의 가옥에서는 이러한 기능의 측간채는 다른 도서보다 적게 나타난다. 이는 주 산업이 농업이 아닌데서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헛간채는 헛간(짚)과 외양간 등으로 구성된 건물인데 한 가옥에 사랑채와 동시에 건립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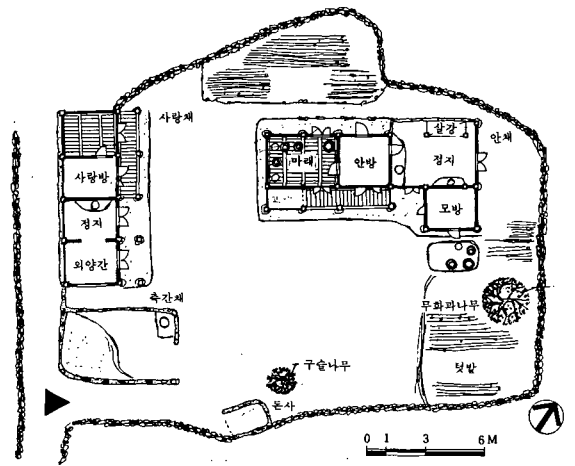


그림4 제갈씨 가옥 배치도(1823년 건립, 新安郡 荷衣面 大里)

건물	주기능	실 명	기본구성(室)	비고
안채 (본 채)	거주	안방, 모방, 갓방	안방, 정지, 마래, 모방	뒷마루
	취사	정지		
	수장	마래, 고방, 헛간, 정지		
	제례	마래		
사랑채 (행랑채)	거주	사랑방	사랑방 사랑정지 헛간(외양간)	뒷마루
	수장	헛간		
	가축사육	외양간		
	기타	외양정지, 방앗간		
측간채	측간 두엄간 잣간			
헛간채	수장	헛간		
	가축사육	외양간		

표4 南西海 島嶼地域 민가의 建物·室 構成

3. 單位空間의 構成과 性格

민가는 그 특성상 실의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히 홑집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연구지역에서 나타난 안채에는 안방, 정지, 마래, 모방, 갓방, 외양간, 헛간, 고방, 정지광 등의 9개 실이 출현하고 이중 안방, 정지, 마래는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모방도 거의 모든 가옥에서 존재하나 3칸 규모의 가옥에서만 생략된다. 사랑채에는 사랑방, 외양정지, 외양간, 헛간, 방앗간 등이 나타난다.

주요 공간의 규모 및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실의 성격 파악은 가급적 가옥들이 지어진 19세기의 住生活에 맞추어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9세기의 전통사회에서 마련된 공간에 TV,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현대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의 생활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① 안 방 : 3칸이나 4칸집을 막론하고 모두 건물의 중앙 즉, 정지와 마래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실의 호칭은 큰방이라고도 하나 현재는 대부분이 내륙지방에서와 같이 부부중심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 안방이라고 한다. 실의 규모는 4.8㎡에서 12.2㎡까지 다양한 면적분포(평균 8.3㎡, 2.5坪)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흑산도지역의 민가에서는 평균 7.1㎡(2.2坪)로 다소 떨어진다. 구조상 後退를 둔 가옥에서는 그곳까지 안방으로 넓혀져 있다.

안방은 다른 지방의 민가에서와 같이 주인부부의 거처, 식사, 가족들의 모임, 그리고 사랑채가 없는 경우에는 손님접객 등의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옥에서는 정지와 마래쪽으로 셋문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뒷문은 출입구로 이용하지 않고 주로 채광 및 환기의 기능만을 하고 있다. 아랫목 내지는 옷목에는 2개의 굽은 장대로 시렁을 설치하여 이불, 가재도구 등을 올려 놓는다. 또한 헛대를 설치하여 옷을 걸어 놓은 가옥도 있다. 정지쪽으로는 벽장 설치(내부깊이 : 70~80cm)는 흑산도를 포함한 남서해지역, 즉 新安郡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甫吉島와 靑山島 등 남해쪽으로 갈수록 거의

모든 가옥에서 벽장을 설치하였다.

② 정 지 : 안채내에서 제일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곳으로 면적은 평균 13.0㎡(3.9坪)이다. 그러나 흑산도와 남해지역 만큼은 3坪이 채 못된다. 室의 위치는 주로 端部에 자리하고 있으나 모방이 측면에 들어서는 경우는 자연히 중앙에 놓이게 된다. 정지의 주 기능은 취사와 난방을 위한 불때기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 작업공간으로도 쓰여진다. 주요시설로는 안방과 모방쪽에 부뚜막이 설치되며 뒷문 옆 退間에는 약 1m 높이 위로 찬장 역할을 하는 살강(사랑)이 꼭 설치된다. 退間이 없을 경우에는 벽선 밖으로 달아내어 설치하거나 안쪽으로 별도의 기둥을 세워 설치한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모방이 정지 전면에 올 경우이고 모방이 없는 경우에는 앞문 옆 퇴간부분에 설치된다. 정지광이나 나뭇간 등의 별도 시설은 가옥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몇몇 가옥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많은 가옥(특히 黑山島와 都草지역)에서는 外風에 의한 역류현상을 막기 위해 정지내의 한구석에 굴뚝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바람이 많은 도서지역에서 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구조라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가옥에서는 벽과 천장이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어 취사와 난방을 전적으로 아궁이에 의존했던 옛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더우기 내부에 굴뚝을 둔 가옥에서는 그 양상이 더욱 심하다.

안방과 정지 사이의 벽 중간에는 아직까지 호롱불을 설치했던 사각구멍의 유리 봉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가옥도 있다. 호롱불은 옛날 안방과 정지를 동시에 밝히기 위한 중요한 조명시설이었다. 아직까지 부뚜막 한쪽편에 조왕신을 둔 가옥도 있다. 조왕이란 부녀자들이 정지내에 모시는 일종의 家宅神으로 매일 새벽에 맑은물을 떠다가 사발에 갈아주고 家内の 편안함을 기원한다.

③ 마 래 : 건물의 側端部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정지 다음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면적은 흑산도지역이 평균 6.7㎡(2.1坪), 전체 지역은 평균 10.0㎡(3.0坪)로 정지와 같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수산업이 주업인 黑山島 보다는 농업이 주업인 기타지역에서 더 넓은 수장공간이

필요했던 것에서 오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마래” 또는 “마리”라고 불리워지는 이 室의 호칭은 “마루”의 이 지방 方言으로 바닥에 마루를 깔았건 아니면 흙바닥으로 되어 있건 내부바닥의 시설과는 관계없이 이 지방에서는 기능에 의해 마래(마리)라고 불리운다. 현재 많은 가옥에서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나 규모가 작거나 죽담구조의 가옥에서는 상당수가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이 실의 기능은 내륙지방의 안채 광과 유사하고 생활공간이면서 개방적인 “대청”과는 오히려 성격이 다르다. 즉 전면에 육중한 판장문이 설치된 극히 폐쇄적인 공간이다. 이곳에는 곡물을 넣은 비교적 큰 항아리(荷衣島 大里마을 장명현씨 가옥의 경우 큰 항아리는 중앙부 지름이 70cm, 높이가 99cm나 된다)가 벽선에 따라 1열로 놓여지고 다시 그 위로 작은 항아리가 얹혀진다. 또한 각종 살림도구, 자주 쓰이지 않는 부엌가구, 제사용구 등이 벽에 걸려 있거나 시렁위에 얹혀져 있다. 마래는 곡식에서부터 각종 생활용구까지 보관되어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요공간이다.

한편 마래의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보통 2~3 代祖까지의 神位를 모셔두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점이다. 보통 정면 출입구 맞은편 벽 상부에 감실장을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고 감실장없이 “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상자를 선반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 현재 남서해 도서지역에서는 상당수의 가옥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제례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는 祠堂을 별도로 건립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사회적 구조, 한편으로는 민가 구조에서 마래방을 지혜롭게 이용한 것으로 여겨

진다. 중부지방의 일부 가옥에서는 대청 후면쪽에 별도의 실을 두어 祖上의 神位를 모셔두기도 한다. 이상의 사실로 볼때 마래는 儒敎社會에서 제일로 중요시여졌던 祭禮儀式을 담당했던 가옥내의 주요공간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¹¹⁾

이 실의 상부 모릿대(종도리)에는 上樑文이 쓰여지고(특히 荷衣島)안방 사이 벽체위에는 성주대가 올려지기도 한다.

④ 모 방 : 평균 1.5내지 1.6평 규모의 작은 방이다. 대개 지식들이 거처하며 손님방으로도 이용한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아들 부부가 이곳에서 거처한다. 남서해지역에서는 대부분 정지의 전면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칭도 모퉁이에 있다고 하여 “모방”이라고 한다. 이 경우 문은 보통 건물 정면과 정지쪽(퇴간부분) 2곳에 설치되거나 출입은 정지쪽에 난 문으로 한다. 그러나 남해쪽(莞島지역)으로 갈수록 이방은 완전히 정지 측면에 들어서고 명칭도 모방보다는 작은방으로 호칭한다. 그곳에서는 안방도 보통 큰방이라고 한다.

⑤ 갓 방 : 모방옆에 위치한 모방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작은 방이다. 식구가 많은 집에서 지식들이 기거하며 옛날 머슴이 있을 때에는 이곳에서 거처했다고 한다. 규모는 보통 모방보다 약간 작다.

⑥ 고 방 : 도정하기 전의 벼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前面 退間의 뒷마루 끝에 보통 설치한다. 그러나 마래 내부의 뒷퇴, 또는 측면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바닥과 벽면은 주로 板壁으로 되어 있으며 개구부는 뒷마루쪽에 나 있고 그 구조는 번호를 매긴 7~8장의 널판을 순서대로 끼워 맞추게 되어있다. 면적은 평균 1.5㎡(0.5坪)이다.

11) 申東喆氏는 그의 碩士學位논문(pp. 143)에서 마래에 祖上의 位牌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그 根源을 流配 당한 士大夫 후손들의 조상숭배사상에서 찾고 있으나 그렇지 만은 아닌것 같다. 실상 조선후기에 流配地로 선택되었던 섬은 珍島나 莞島, 黑山島 등 몇몇 섬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수도 극히 적은 편이었다. 필자는 오히려 ① 조선후기 島嶼에는 상당수의 주민정착과 아울러 전통적인 儒敎社會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② 주민들의 直系血祖는 流配人이 아닌內陸人이었다는 점으로 視覺을 돌리고 싶다.

지역/실명	안방	정지	모방	마래	조사가옥수
南西海지역	2.5	3.9	1.5	3.0	180
黑山島지역	2.2	2.9	1.6	2.1	22
南海지역	2.55	2.7	1.55	2.35	30

표5 地域別 內部空間 規模 (단위 : 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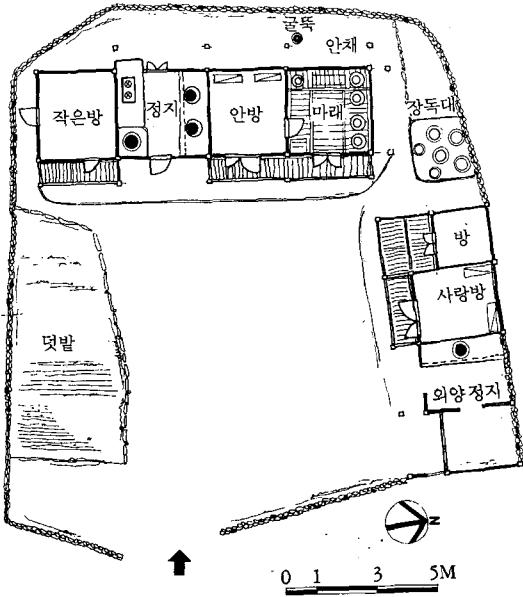


그림5 최씨가옥 배치도(1867년 건립, 莞島郡 靑山面 堂里)

세부적인 배치형태는 마을이나 立地環境에 관계없이 크게 2가지 類型으로 나타나고 배치의 기본이 되는 건물은 역시 안채와 사랑채이다. 즉 안마당의 대지의 중앙에 잡아 그 뒷쪽(안쪽)에 안채만이 놓여지는 “一字形”과 안채전면의 좌측내지는 우측에 독립으로 사랑채를 건립하여 “ㄱ字形”으로 구성된 배치형태이다. 사랑채의 위치는 향이나 가옥의 진입동선과는 관계없이 대지의 조건에 따라 편리하게 좌측내지는 우측에 건립되어 졌다. 이 두가지 類型외에 안채의 전면에 사랑채내지는 부속사가 들어서는 “二字形”이나 또는 “ㄷ字形”, “ㄱ字形”의 건물배치형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측간채는 대부분 일정한 형식없이 가옥의 入口 측면내지는 대지의 한쪽 모퉁이에 즉 안채와는 좀 떨어져서 자유롭게 위치하고 있다. 간혹 측간채 등이 안채 전면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二字形”의 유형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안채의 중심축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또한 측간채가 건물의 규모나 성격상 배치구조에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사료되어 필자는 “二字形” 배치로 분류하지 않았다. “ㄷ字形”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IV. 건물의 配置와 平面體系

1. 건물의 配置體系

住生活의 形態, 物理的인 環境, 經濟條件 등의 여러 요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棟의 배치는 이 지역이 갖는 특수성(島嶼 農家構造의 零細性, 敷地선택의 한계, 敷地の 협소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類型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中·上流住居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文化圈이 다른 여타지역의 민가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장에서 밝혔듯이 19C 남서해 도서지역의 민가는 안채, 사랑채(행랑채), 헛간채, 측간채 등 4개 동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들의 組合類型은 가옥의 형편에 따라 ① 안채+사랑채+측간채, ② 안채+측간채, ③ 안채+헛간채+측간채, ④ 안채+헛간채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 ①번과 ②번의 출현 빈도수가 가장 많고 ④번의 경우는 헛간채가 측간(변소)의 기능을 함께 할 경우인데 빈도수는 극히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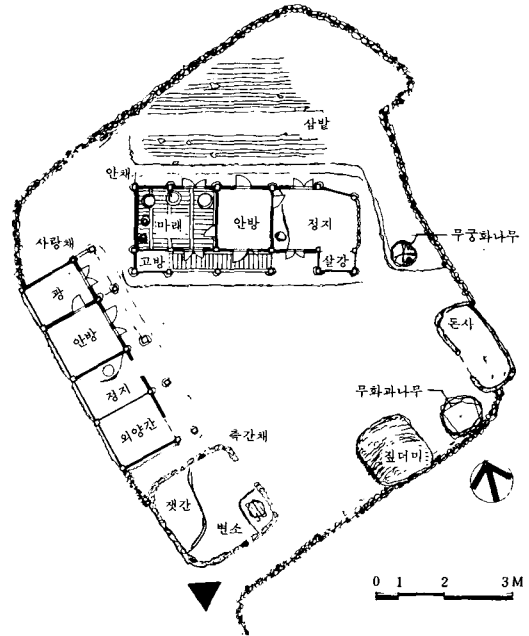


그림6 박씨가옥 배치도(1797년 건립, 新安郡 荷衣面 大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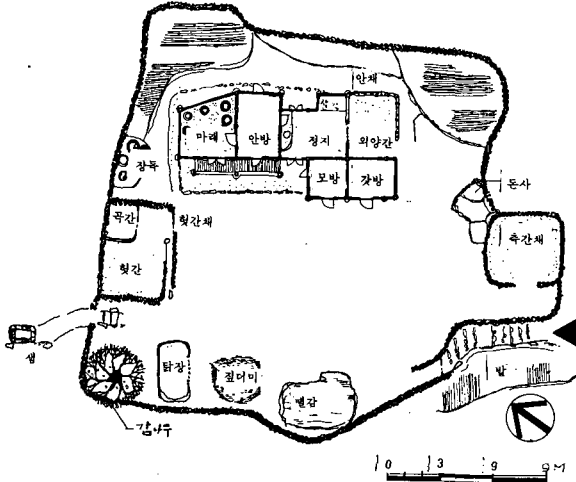


그림7 주씨가옥 배치도(1861년 건립, 新安郡 岩泰面 短庫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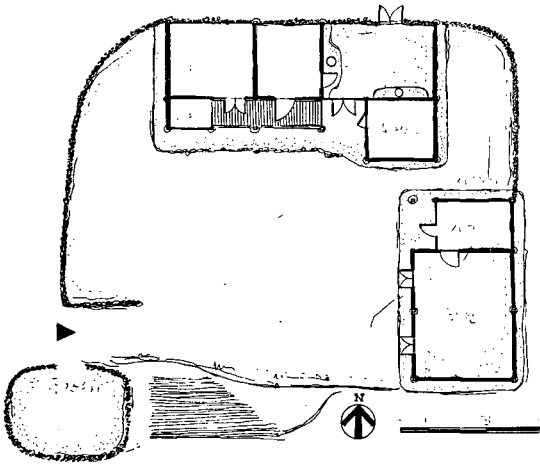


그림8 최씨가옥 배치도(19C후반, 珍島郡 臨淮面 連洞里)

2. 平面的 構成體系

건축의 기본이 되고 각 지역별 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평면구성은 민가연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9>는 연구지역 민가의 안채(본채) 평면구조를 室構成 중심으로 類型化시킨 것이다. 모두가 一字形 複집계통으로 개방형 평면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전면으로 뒷마루가 놓여진다.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분석 정리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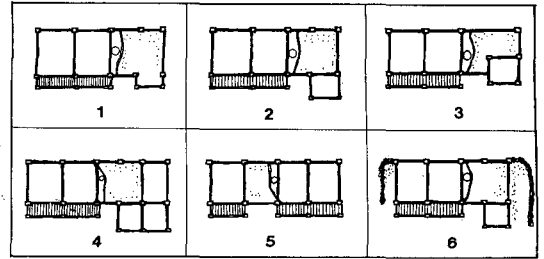


그림9 19세기 南西海 島嶼地域 民家の 平面類型

① <類型 1>과 같은 一字形 3室 형식으로 정지, 안방, 마래가 일렬로 나란히 배열된다. 前退를 두어 그곳에 마루가 시설되기도 하고 마루없이 土房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類型의 가옥은 경제적으로 小農家가 많고 또한 구조도 열악한 편이다(죽담구조). 조사가옥중 약 10%정도가 이 類型에 해당되며, 특히 荷衣面의 朴亭心 가옥(1797년 건립)도 이 類型으로 되어 있어 주목된다.

② 마래, 안방, 정지, 모방의 4室로 이루어진 <類型 2>와 같은 형식이다. 이 경우 모방(간혹 지역에 따라 "작은방"이라고도 부름)이 전면의 退柱線보다 약 1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一字形 평면이지만 7자형을 연상케 한다. 안방, 정지, 모방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집중)되어 있고 서로의 동선도 짧다. 조사가옥중 약 6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類型은 남서해 도서지방의 민가 평면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패턴이다. 그러나 遠海에 위치한 흑산도지역과 남해상의 靑山·甫吉島 등 각도군 지역에서는 이러한 類型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특히 주목된다.

③ <類型 3>은 <類型 2>와 유사한 구조이나 모방이 정지 안쪽으로 반쯤 침투되어 있어 완전한 一字形을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지공간이 축소되는 반면 구조적으로는 단순화되고 있다. 출입문은 정지안쪽에 있지 않고 前退부분의 안방쪽 가까이에 있다. 모방 뒷쪽으로는 빨감 등이 놓여지는 정지헛간(광)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약 10%미만의 가옥이 이 類型을 취하고 있다.

④ <類型 4>는 <類型 2>의 구조에 정지와 모방 측면으로 외양간(헛간)과 갓방이 겹집형식으로 추가되어 室이 4室에서 6室으로 늘어나는 형식이다.

간혹 외양간이 전면에 오기도 한다.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큰 中農家일수록 이러한 類型이 많이 나타난다. 조사가옥중 약 20% 정도가 보이며 역시 흑산도지역과 남해도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⑤ <類型 5>는 모방을 정지 전면에 두지않고 측면에 배치한 역시4室구조의 一字形 형식이다. <유형 2>와 달리 모방의 독립성이 강하다. 이러한 類型은 주로 黑山島지역과 靑山·甬吉島 등 남해상의 가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기타 도서에서는 간혹 나타난다.

⑥ <類型 6>은 몸체의 本構造에 양측 또는 어느 한쪽에 죽담구조로 헛간 내지는 외양간을 덧붙이는 형식이다. 살림규모의 증대로 인해 부족한 공간을 손쉽게 얻어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類型은 결국 <類型 2>와 같은 형식이라 하겠다.

한편 안채 정면에서 보아 좌·우측 어느쪽부터 마래 또는 모방(작은방)이 놓이는가는 <표6>에서 사례로 분석한 바와 같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으나 다만 사랑채와 마래위치와는 다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즉 사랑채가 있는 가옥에서는 그에 가깝게 마래가 위치하고 있다. 그

리고 荷衣島 대리마을같은 곳만은 마래가 건물전면에서 보아 주로 좌측편에 위치한다.

이상과 같은 고찰로 볼때 19세기에 건립된 南西海 島嶼地域 민가의 기본 평면형은 모방이 정지 전면에 오고 마래가 안방 측면에 드러지는 <類型 2>와 같은 형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남해상으로 갈수록 <類型 5>가 다시 절대적인 평면형으로 등장한다. 즉 모방의 위치가 平面類型을 결정짓는 큰 변수가 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民家平面形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지·안방·대청·건너방, 또는 정지·안방·건너방 순으로 배열되는 일반적인 남부지방형과는 크게 區別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10>은 도서 지역별로 안채의 平面類型(기본형)을 비교한 것이다. 黑山島와 莞島지역(靑山·甬吉·金日島 등)이 거의 같은 類型으로 되어 있어 특히 주목된다.

사랑채의 평면 형식은 특별한 類型없이 전퇴를 둔 4間 一字形이 지배적이다. 사랑방, 정지, 광, 외양간, 헛간, 방앗간 등의 실이 가옥의 형편에 맞게 조합되어 있으며 곳에 따라서는 3間 내지는 2間으로 줄어든 가옥도 있다. 사랑방 前面의 退

도서명	가옥명	실 위치 (좌측 ↔ 우측)	사랑채에서 마래위치	가옥문간에서 마래위치	가옥 문간 위치	안채 좌향
靑山	팍씨가옥	마래 ↔ 모방	가까이	멀 리	대지 정면	서 향
	정씨가옥	마래 ↔ 모방	가까이	가까이	대지 정면	서 향
	최씨가옥	모방 ↔ 마래	가까이	같 음	대지 정면	동 향
	김씨가옥	마래 ↔ 모방	멀 리	가까이	대지 측면	남 향
	최씨가옥	모방 ↔ 마래	가까이	멀 리	대지 측면	남 향
	팍씨가옥	모방 ↔ 마래	멀 리	멀 리	대지 측면	남 향
荷衣	제씨가옥	마래 ↔ 모방	가까이	가까이	대지 측면	남동향
	김씨가옥	마래 ↔ 모방	멀 리	가까이	대지 측면	남동향
	정씨가옥	모방 ↔ 마래	가까이	멀 리	대지 측면	동 향
	권씨가옥	마래 ↔ 모방	가까이	가까이	대지 측면	남 향
都草	고씨가옥	마래 ↔ 모방	가까이	멀 리	대지 측면	남서향
	김씨가옥	모방 ↔ 마래	가까이	멀 리	대지 측면	남동향
	김씨가옥	마래 ↔ 모방	가까이	가까이	대지 측면	서 향
	김씨가옥	모방 ↔ 마래	가까이	멀 리	대지 측면	동 향
	한씨가옥	마래 ↔ 모방	가까이	가까이	대지 측면	남 향
	안씨가옥	마래 ↔ 모방	멀 리	멀 리	대지 측면	남 향

표6 안채 양측의 室(마래, 모방) 결정 관계요소

에는 마루가 설치되나 나머지는 土房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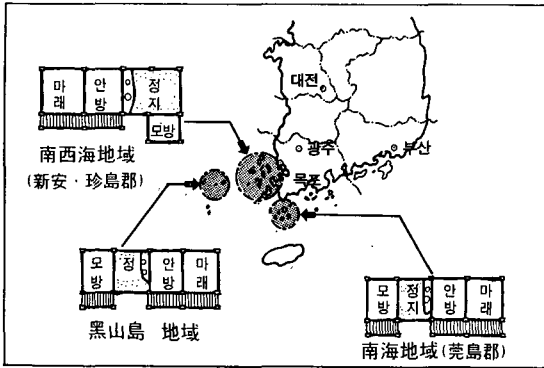


그림10 19세기 南西海 島嶼地域 民家の 平面類型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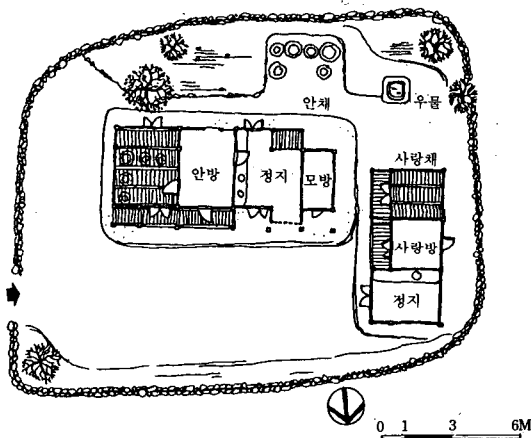


그림11 이씨가옥 배치도(1856년 건립, 新安郡 黑山面 鎭里)

V. 건축 構造 · 意匠의 特色

도서지방의 민가는 재료구입의 한계, 구조기법의 단순성 등으로 구조형식은 거의 일정 類型化 되어 있다. 우선 내륙지방과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구조는 바람을 덜타기 위해 전반적으로 지붕을 낮췄으며 특히 양측 端部の 기둥을 낮게하여 자연스럽게 지붕의 양쪽 끝을 낮게했다. (청산도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지순다”라고 한다) 또한 안방 전면에는 개구부를 작게하기 위해 2짝문을 달지 않고 외쪽 여닫이문만 설치하여 출입구로하고 대

신 그 옆으로는 밖의 동태과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봉창”이라고 하는 작은 여닫이창(띠살)을 설치하였다. “봉창”은 보통 사랑채의 작은방에도 설치되다. 이 창은 다른지방에서 보다는 전남지방, 그 중에서도 특히 南西海 沿岸 및 島嶼地方 민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基壇은 폭 50~90cm, 높이 20~40cm 정도로 그 形狀은 막돌을 1벌대로 놓고 흙으로 上面을 다진 형태이다. 그러나 최근에 시멘트몰탈을 이용하여 기단 전체를 마감한 가옥도 상당수 나타난다. 순수한 土壇과 長大石 基壇도 몇몇 가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礎石은 대부분이 직경 30~50cm 크기의 막돌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일반적으로는 10~15cm 角의 方柱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10여 가옥은 전면 退柱에서 직경 12~18cm 정도의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곳에따라 기둥에는 많은 헛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이는 한때 新材 사용의 規制가 심하여 일부로 구멍을 내어 狹은 部材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기둥의 높이는 전면 退柱가 보통 200cm 내외이고 안 기둥은 이보다 20~30cm 정도 더 높다. 道里는 10×8cm에서 12×10cm 크기의 방형도리가 대부분이나 전면의 처마도리 만큼은 직경 10~12cm 크기의 원형도리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 형상은 통나무의 표피만 벗기고 대강 다듬은 거친 형태로 中·上流 家屋의 굴도리와는 그 樣狀이 다르다. 들보는 그 크기가 일정치 않으나 보통 15×12cm ~ 18×15cm 크기로 거칠게 다듬은 方形이며, 퇴보는 8~10cm 크기의 角材를 사용하였는데 그 형상이 아이치 모양으로 굽어져 있는 가옥도 많이 나타난다. 또한 춤이 폭보다 상당히 작아 납작한 형상도 찾아볼 수 있다. 서까래는 직경(끝마구리) 6~8cm의 통나무를 사용하였고 간격(처마 아래 쪽)은 보통 30~35cm 정도로 배치되어 있다. 처마는 대부분 흘처마이나 처마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 30~50cm 길이의 부재를 서까래 위에 올린 겹처마형식도 여러 가옥에서 찾아볼 수 있다.

架構는 2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되는데 하나는 前·後로 퇴를 둔 2高柱5樑형식이며 다른 하나는 전면으로만 퇴를 둔 4樑구조이다. 前者의 경우가 64%이며 後者의 경우는 36%로 前者가 많다. 後

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뒷벽면체가 죽담구조의 가옥도 포함되어 있다. 壁體는 心壁構造의 흙벽이 추가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영세한 가옥에서는 뒷면 벽체를 죽담구조로 하였다. 이 경우에는 죽담 상부에 道里없이 바로 서까래가 걸린다. 지붕은 우진각 草家지붕이며 재료는 벗짚이다. 마름(이영) 1장을 엮는데 필요한 벗짚은 보통 7~8단이며 5칸 정도의 집을 이을 때는 70~80장의 마름이 필요하다고 한다(荷衣島 大里 마을 경우). 그러나 흑산도 지역에서는 논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밭에서 뿔¹²⁾을 경작해서 지붕의 재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뿔밭이 없는 가옥에서는 벼농사터가 비교적 많았던 都草島나 飛禽島에서 벗짚을 가져와 지붕을 이었다고 한다.

窓戶는 주로 마래와 부엌은 튼튼하고 빛을 차단하며 폐쇄성 있는 板長門을 설치하였고 안방과 모방 등의 거주공간에는 띠살문을 달았다. 이외에 규모가 작거나 죽담구조의 가옥에서는 대나무로 살을 짠(삿살 또는 정자살) 죽살문이 보이며, 안방 뒷문과 정지로 통하는 샛문 등에는 일정한 형태없이 2~5cm 폭을 얇은 판자로 살을 구성한 문도 여러 가옥에서 찾아볼 수 있다.

名室의 바닥구조는 흙바닥, 마루 설치, 온돌 등의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정지, 헛간 등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居處하는 안방과 모방 등은 온돌시설이 되어 있다. 뒷마루는 보통 50cm 높이로 前退의 안방과 마래 앞쪽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마래의 바닥은 마루와 흙바닥 2가지 형태가 있는데 60% 정도가 마루를 설치하였다. 흙바닥 구조는 古式이라 할 수 있으며 살림의 형편이 나아지면 흙을 파내고 마루를 시설하기로 한다. 특히 죽담구조의 가옥에서는 거의 흙바닥 구조이다.

도서지방의 민가에서 바람을 의식해 만든 것 중 흥미있는 것은 굴뚝이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지붕위에 높이있던 것이 경기도 지방에서는 추녀 위에 걸쳐있고 제주도로 내려가면 아예 없어서 버

린다. 굴뚝을 낮게 내야 바람의 피해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초면 지남리 마을에서는 건물내부인 정지 한쪽 구석에 굴뚝을 낸 집이 많다. 벽에 구멍만을 뚫은 집도 있고 토방에 역시 구멍만 낸 집도 있다.

VI. 요약 및 向後課題

소위 “入島祖”로 일컫는 현 주민으로부터 10~15대祖의 生存期인 17세기 무렵에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南西海 島嶼地域의 住居文化는 아직까지도 19세기에 건립된 상당수의 가옥들이 남아 있어 이 지역 전통가옥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가옥들은 초기 마을형성 시작후 거의 2세기가 지난 이후에 지어진, 즉 시대적으로 근대화이전에 건축된 완성형의 傳統家屋으로서 조선 후기 이지역의 住居文化 體系를 總體의으로 밝혀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들 가옥에는 육지에서 보기 힘든 上樑文이 기록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집의 역사가 정확히 드러나고 또한 지혜롭게 험악한 도서환경을 극복한 건축의 단면도 여러 곳에서 보인다. 즉 육중한 돌담장, 낮은 집높이, 작은 창(봉창) 설치 등, 또한 좁은 공간에서도 조상승배의 祭禮시설 설치 등 높은 주생활의 단면도 엿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가옥들이 곧 소멸될 처지에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이론적인 性格規定보다는 기초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1986년부터 현장조사에 나섰고, 本稿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목포대 박물관과 같은 대학 島嶼文化研究所에 島嶼(지역)별로 발표하였던 내용을 새로 간추리고 미흡한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발표내용은 경직된 틀 속에서 단지 物理的인 현상파악 위주로 내용을 엮었을 뿐이었고 본 발표 역시 그 範疇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한편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데에는 우선 섬을 總體의인 生態系의 하나로 파악함에 있어 건축학적 연구방법론의 모색이 어려웠고, 둘째는 학문적 視覺이 單線에만 머물고 學際的(Inter Disciplinary) 연구의 場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그와같

12) 山野에서 흔히 자라는 높이 30~50cm 정도의 多年草로서 잎은 길이 20~50cm, 나비 0.7~1.2cm이다. “뿔”은 “띠”의 이 지방 方言이다.

은 문제점을 인식, 도서 민가연구에 임할 예정이며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 즉, ① 入島祖들의 前住居地, 즉 海南, 靈岩, 康津 등 내륙연안지방의 住居體系을 파악하여 도서지방으로의 收容, 固着化 과정 연구, ② 島嶼民家를 낱개의 산물이 아닌 마을조직의 有機的인 共同體로 인식,

마을과 민가의 연계연구, ③ 특히 共同體意識이 강했던 島嶼民의 가족, 사회, 마을구조와 결부시킨 住生活 측면의 민가연구, ④ 가옥의 外部空間 구성과 변화·이용실태 고찰, ⑤ 傳統民家の 現代文化 收容, 適應, 改良化 과정등을 후속 연구과제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與地圖書
2. 戶口總數
3. 李海濬, 新安 島嶼地域文化的 歷史的 배경, 목포대 博物館 學術叢書, 第9冊, 1987
4. 李海濬, 岩泰島의 文化遺蹟과 遺物, 목포대 「島嶼文化」, 第1輯, 1983
5. 張保雄,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제, 1986
6. 全羅南島, 전남의 마을유래 자료집, 1988
7. 新安郡, 新安郡 統計年報, 1984~1989년
8. 金光彦, 한국의 옛집, 마당, 1982
9. 申東喆, 南西海 島嶼民家建築에 관한 연구, 홍익대 碩士學位논문, 1979
10. 朴益秀, 島嶼마을의 공간구조와 건축적 특성(安佐島 방월리 마을을 중심으로) 목포대 「島嶼文化」, 第4輯, 1986
11. 金知民, 珍島郡의 전통건축, 목포대 博物館 學術叢書 第7冊, 1987
12. 金知民, 智島의 전통건축, 목포대 「島嶼文化」, 第5輯, 1987
13. 金知民, 黑山島의 전통민가, 목포대 「島嶼文化」, 第6輯, 1988
14. 金知民, 한국 南西海 島嶼地域의 전통가옥 마을, 목포대 博物館 學術叢書 第17冊, 1989
15. 金知民, 甫吉島의 전통민가, 목포대 「島嶼文化」, 第8輯, 1991
16. 金知民, 19세기 이후 靑山島 민가의 시대적 변천과 특성, 목포대 「島嶼文化」, 第9輯, 1991
17. Fosberg, F.R. "The Island Ecosystem" in Man's Place in the Island Ecosystem, F.R. Fosberg ed. Bishop Museum Press. 1961
18. Vayda, A.P & raparport, R.A. "Island Cultures" in Man's Place in the Island Ecosystem, F.R. Fosberg ed. Bishop Museum Press. 1960

19th Century's Typical System of Commoner's House in Southwestern Island Area of Korea

Kim, Ji Min

ABSTRACT

This study is an architectural investigation paper which has been investigated for 5 years from 1986 about commoner's traditional houses and village in southwestern island area of Korea. Man has lived in this area from the prehistoric age. But from 13C to 14C and in 16C most of people had left this islands by external invasion(Japan) and from 17C many people have lived in real earnest.

This area did not have cultural interchange easily than inland area because of geographical conditions. Therefore, so far, many traditional factors have been handed down and especially, a good many commoner's traditional houses exist. The time of building of these houses is mainly 19C and building shape of those days remains nearly as it is. About 450 houses have been investigated for 5 years.

The composition of the houses is composed of Anchaе(a central house), Sarangchaе(an attached house of anchaе) and Chukganchaе(It has rest room and stores barnyard manure). Somtimes, Sarangchaе was omitt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 of the house. Generally, the form of arrangement of house is divided into two shapes; One is '—' shape which has only Anchaе and the other is 'ㄱ' shape which has Anchaе and Sarangchaе. In the scale of the house, Anchaе averages 41㎡ and Sarangchaе averages 27㎡.